



생활속 건강

| www.kcca.or.kr

- ▶ 알코올과 함께 떠나는 인체파괴여행
- ▶ 알코올과 함께하는 인체파괴여행 2 [위, 십이지장]



알코올과 함께 떠나는 인체파괴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정

정하겠습니다. “저는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저는 곡식이나 과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분해 되어 만들어지는데요.. 곡식에서 소주, 맥주, 위스키, 보드카 같은 친구들이 나오고, 과일에서 와인, 꼬냑 같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저는 맨날 아주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도, 슬퍼도, 화가나도, 반가워도 절 마구 부르거든요. 아! 이유 없이 그냥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게 저의 일이니까요. 아~ 지금 저기서 절 부르는군요. 그럼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 첫 번째 코스 <입>

자 저기 입구 보이죠? 저건 입이라고 하는데요, 저 입구로 들어가면 우리의 여행이 시작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 염증

아! 저 녀석 또 있네... 저기 저 빨간색 보이세요? 저건 사람들이 염증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절 아주 싫어해요. 전에 한 번 가까이 갔더니 아주 뜨겁고 크게 변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좀 건들지 말라고. 근데 여기 입은 위낙 좁아서 가까이 안 갈수도 없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와! 저 화내



는 것 좀 보세요. 오늘은 더 화내는 것 같네... 화 풀려면 몇 일 가겠는데요.

◎ 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허라는 곳입니다. 색깔 좋고 부드럽죠. 근데 내일 와서 다시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제가 지나가고 나면 황사 맞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누렇게 하얀 것들로 뒤덮이고, 갈아엎은 논 바다처럼 까끌까끌해 지거든요... 진짜 불만해요.

◎ 입냄새

음...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서 안 좋은 냄새나죠? 그건요 제가 여기 왔다가 나갈 때 물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입이 바짝 말라서 냄새가 완전 고약해진데요. 여기 숨어사는 냄새나는 박테리아 녀석이 있는데, 그 놈이 건조한 환경을 너무 좋아해 물이 없으면 막 번식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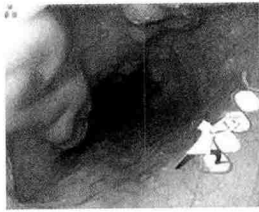
◎ 구강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저기 깊숙한 곳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DNA라고 하는 친구랑 놀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애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변한 게 눈에 조금씩 보여요.

개 말로는 이렇게 조금씩 변하다 암이 된데요. 그럼 자기는 천하무적이라나... 아무튼 자주 놀러오래요... 어라~ 뒤에 에탄올 친구들이 또 들어오네요. 저 때문에 길이 막히겠어요... 조금 더 내려가볼까요?

◎ 두 번째 코스 <식도>



여기는 식도라는 곳인데 구경할 게 별로 없어요.

◎ 정맥류

아~ 저기 하나 있네요. 저기 식도벽에 약간 파란색 튀어나온 선 보이죠? 저건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따 토할 때 잘못하면 저 혈관이 터져서 피를 토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저 때문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 식도염

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입에 있던 염증이라는 애는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친구보다 애가 더 무서워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요. 화를 더 잘 내거든요.

◎ 식도암

참! 여기도 제 DNA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언젠가부터 점점 변하더라고요. 안 그러던 애들이 왜 자꾸 저만 만나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아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아직 봐야 할 코스가 많은데.....늦었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마저 구경하죠.

[2007. 10. 18 하이닥]

알코올과 함께하는 인체파괴여행 2 [위, 십이지장]

안녕하세요 에탄올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오늘 여행 스케줄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식도까지 구경했었죠? 그럼 오늘은 위부터 구경하면 되겠네요.

◎ 첫 번째 코스 <위>

위는 위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 장기 중 하나인데요. 음식을 저장하고 강한 산성물질을 분비해서 단백질 등을 분해시켜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 주고 밑으로 내려 보내는 기관입니다. 저 알코올의 일부도 여기서 흡수되어 혈관으로 가게 되지요. 저기가 위의 입구인 분문이라는 곳인데요. 위와 식도의 국경입니다. 저길 통과해야 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

혹시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발견한 미국 의사 이름을 따서 붙인 병명인데요. 저랑 아주 친한 녀석 중 하나랍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위체부는 넓은데 식도와 연결된 분문 위로는 아주 좁잖아요. 보통 저를 많이 마실 경우 구토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게 되면 넓은 위체부에서 좁은 식도로 내용물이 역류되어 쏟아져 나가게 되니 압력이 높아지게 되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경계부위인 저 분문의 점막이 파열되어 피를 토하게 됩니다.

◎ 점막파열-> 근육층파열-> 동맥파열-> 생명의위험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토하고 나서 술을 또 먹어요. 그럼 구토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 처음엔 점막이 파열되고, 다음엔 근육층이 파열되고, 나중엔 동맥까지 파열될 수도 있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 이거 처음부터 너무 무서운 곳을 구경했

나요? 분위기가 싸하네요. 하하! 그럼 위 안으로 들어가 보죠.

◎ 점막손상, 위궤양, 위천공

자 여기서부터 진짜 위의 시작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주변이 모두 강산이거든요. pH 2 정도의 염산이 위벽에서 분비가 되요. 아! 근데 걱정 마세요 위벽은 말이죠 여기 보이는 끈적끈적한 점막이 둘러싸며 보호하고 있어 강산인 주변 환경에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거든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어쩌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점막을 좀 손상 시키기도 한답니다. 그 손상된 부위가 강산에 노출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위궤양이 생기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위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만 안 생기면 되죠 뭐. 위천공이요? 꼭 제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끔은 저 때문에 생기기도 하니깐요. 아까 이야기한 제 친구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이 좀 오버하면 간혹 위천공이 생기거든요.

근데 위천공이 생겼을 때 수술 빨리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DNA는 다른 애들과 달리 절 만나도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섭섭해요. 근데 모르죠 변하는데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고, 이만하면 위는 다 구경한 것 같군요. 사실 위는 뭐 넓기만 하지 구경할게 별로 없어요. 저기 출구인 유문이 보이네요. 위와 십이지장의 국경을 유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문은 아주 탄력적인 괄약근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 괄약근은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열리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뛰어~

◎ 두 번째 코스 <십이지장>

십이지장염증, 궤양 자 여기는 십이지장입니다.

손가락 12마디 길이라고 십이지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위와는 반대로 강알카리거든요. 위에서 강산에 반죽된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강알카리에 중화되어 소장으로 내려가야 장기가 손상을 입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쩌나.. 제가 위에 손상을 입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십이지장이 감당을 못해 위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곤 합니다. 하하! 이거 죄송합니다.

◎ 세 번째 코스 <췌장>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강알카리는 십이지장이 분비하는 게 아니라, 십이지장 연결통로로 저기 옆에 보이는 노란색 췌장이 분비하는데요.

췌장 하나까 또 내 친구들인 췌장염들이 생각나네요. 급성췌장염하고 만성췌장염. 이 녀석들 제가 다 업어 키워어요. 제가 한 번씩 들어와서 볼 때 마다 얼마나 커지던지. 기특한 녀석들. 지금도 커지고 있네요. 근데 전 급성췌장염 보다 만성췌장염이 더 애착이 가요. 급성췌장염은 제가 오랜만에 들어오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만성췌장염은 제가 만나러 오지 않아도 절대 없어지는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염증은 하도 많이 봐서 별로 구경거리도 못되죠?

저 역시 제가 어딜 가나 염증이 안 나타나는 곳이 없으니 이제 지겹습니다. 아~ 이제 저는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저랑 같이 소장까지 가서 저는 혈관으로 가고 손님께서는 대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 나가실 때 치질 조심하세요~ 성격 고약합니다. 제가 지금도 성질 좀 건드렸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혈관부터 같이 여행을 한 번 떠나 보는 것도 좋겠네요. 거긴 소화기보다 볼거리가 훨씬 많거든요.

[2007. 10. 25 하이닥]